Weekly 2022년 제11호 | 2022.5.12.(목)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원유·제재, G7·EU·러시아】 G7,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

【제재, 러시아】 푸틴 전승절 기념 연설, '전면전'이나 '돈바스 지역 승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코로나, 중국】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유지 전망

【경제·무역, 중국】 중국의 4월 무역 실적 및 향후 경제 전망

【비철금속, 중국】 중국 비철금속의 생산량은 안정적이나 가격은 상승세 지속

【석탄, 중국】 중국 내 석탄 생산량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 석탄 가격 안정세 회복

【물류, 세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 16주 연속 하락 → 향후 상승 가능성

【경제, 미국】 美 연준, 미국 高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제재, 미국·중국】 美 무역대표부(USTR), 對中 관세 301조 검토 개시

【무역·기술, 미국·EU】 美 상공회의소(USCC), 미-EU 무역기술위(TTC) 희망 의제 발표

GVC 뉴스 더하기

① EU 주요 금속자원 부족으로 녹색·디지털 전환 우려

② 글로벌 기업의 탈러시아 움직임 속 리스크 고조

GVC 기초상식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GVC 돋보기

원자재 시리즈 5편 - '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 파급효과'

GVC 전문가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중국 초상은행연구원)

'리튬산업 슈퍼사이클 시작, 글로벌 자원경쟁 심화'

GVC 소식통

①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더 찾아보기

'작지만 큰 기술, 일본 소부장의 비밀(정혁 지음)' 책 소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원유·제재, G7·EU·러시아】 G7,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

-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전승절 개최 전날인 5.8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겠다고 선언함. 아울러, 러시아의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고립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함
- 이와 별도로, 미국은 러시아 국영방송, 금융기관, 관료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함
  - 국영방송 3개(채널1, 로시야1, NTV) 제재, 러시아인 대상 서비스 금지(회계, 신탁, 기업설립, 경영컨설팅 등), 은행(스베르방크, 가스프롬방크) 임원 제재, 러시아 및 벨라루스 관료 2,600명 대상 비자 발급 제한
- EU 또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6차 對러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임. EU 집행위는 5.4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6개월 이내에,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은 금년말까지 중단한다는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4년 말까지, 체코는 '24년 6월까지 수입 중단을 유예하는 예외 방안을 제안했지만, 헝가리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임.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제재가 집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함
- 한편 EU의 5차 對러 제재에 포함된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금지 조치는 8.10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출처 : 로이터·블룸버그·헤럴드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KOTRA 모스크바무역관 등

● 【제재, 러시아】 푸틴 전승절 기념 연설, '전면전'이나 '돈바스 지역 승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전승절) 연설에서 서방의 예상과는 달리 '전면전'이나 '총동원령'을 내리거나 '돈바스 지역에서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음. 영국 BBC 방송은 푸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위협하는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주지 않았다고 보도함
- BBC는 '특별 군사작전',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은 푸틴은 단지 나치의 침공에 저항한 2차 대전에 비유하면서 러시아 대중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전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데 주력했다고 분석함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푸틴이 비록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행위를 끝낸다는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은 만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함
- 한편,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제품·원자재 수출금지(5.3일 푸틴 대통령이 '특별 경제조치'에 대해 서명)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한국은 러시아가 3.7일 발표한 48개 비우호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 발표에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

출처 : BBC, 매일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코로나, 중국】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유지 전망

- 시진핑 주석은 5.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방역 업무를 지시함
- 동 회의에서는 중국이 동태적 제로코로나(動態淸零)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시기·상황에 맞추어 방역 조치를 조정해왔는 바, 금년 3월에는 '20년 우한(武漢) 상황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아울러, 중국의 △인구 대국, △높은 고령인구 비율, △지역발전 불균형, △의료자원 불충분 등의 상황을 고려 시, 방역을 완화할 경우 대규모 감염,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 사례 발생이 불가피하고, 경제·사회 발전,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 이에 동태적 제로코로나 방침을 고수하고, 중국의 방역 방침·정책을 왜곡·의심·부정하는 언행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일일경제동향('22.5.6)

● **【경제·무역, 중국】 중국의 4월 무역 실적 및 향후 경제 전망**

- 5.9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국의 4월 수출은 2,736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하는 데 그침. 지난달 증가율인 14.7%에 비해 10.8%p나 급락하면서 2020년 6월(0.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중국의 4월 수입은 2,225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1% 감소함. 4월 전체 교역액은 4,961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7% 감소함
- 이처럼 중국의 수출입이 동반 부진한 것은 중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과 이에 따른 상하이 봉쇄의 영향으로 평가됨. 지난 3.28일부터 진행된 상하이 봉쇄의 영향이 4월부터 중국 경제 지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수출입 실적이 바로 경제 지표 반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도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 달성을 위해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부양책을 통해 노력하겠지만,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출처 : 매일경제·서울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비철금속, 중국】 중국 비철금속의 생산량은 안정적이나 가격은 상승세 지속**

- 중국의 금년 1분기 10종 비철금속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한 1,617만 톤
  - 구리, 납, 아연 생산량은 각각 264만 톤, 181만 톤, 166만 톤으로 각각 6.1%, 1.2%, 0.7% 증가, 전해 알루미늄 생산량은 963만 톤으로 0.4% 감소
  -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가격은 각각 14.4%, 37.0%, 0.6%, 15.6% 상승
  - 니켈, 코발트, 탄산리튬 가격도 각각 43.2%, 54.4%, 456% 급등

출처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중국 공업정보화부('22.5.7)

● **【석탄, 중국】 중국 내 석탄 생산량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 석탄 가격 안정세 회복**

- 중국의 금년 1분기 석탄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한 10.8억 톤
  - 특히 3월 생산량은 14.8% 증가한 3억 9,600만 톤, 일일 생산량은 1,277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통지(2022년 4호 공지)'를 5월 1일부로 시행 중임. 중국 내 석탄 가격은 가격조정정책 실시, 석탄 생산량 확대, 석탄 소비 비수기 진입 등의 요인으로 현재 안정세를 회복
  - 중국 정부는 올해 3억 톤의 석탄을 산시(山西), 산시(陕西), 네이멍구, 신장 등지에서 추가 생산하고 가격 조정 조치 등을 통해 석탄 공급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
  -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는 석탄 생산업체와 전력업체 등 석탄 소비업체 간 1년 이상의 중장기 계약 체결을 추진 중
- 한편, 국제 석탄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 내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년 국제 석탄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중국 CCTV 재경('22.5.5)

● **【물류, 세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 16주 연속 하락 → 향후 상승 가능성**

-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는 금년 1월 5109.6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16주 연속 하락 중
  - 지난해 7월 말(4196.2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 전주 대비 유럽 노선은 29달러 하락한 5,955달러, 남미 노선은 210달러 떨어진 6,284달러, 중동 노선은 44달러 낮아진 2,344달러를 기록

- 다만 운임 약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봉쇄 해제 이후 상하이 공장 재개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운 운임이 상승 가능성 존재
  - 특히 매년 2분기는 물동량이 증가하는 성수기 대목으로서, 지난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셧다운 해제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물류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음

출처 : 뉴시스('22.5.9) 등 언론보도 종합

● **【경제, 미국】 美 연준, 미국 高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 미국 연준은 '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 주식·원자재 시장 변동성, 러-우 전쟁 등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요소로 부상했다고 분석(5.9일)

- 특히, 인플레이션 충격 완화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침체 위험을 고조한다고 경고함
  - 소비자 측면에서 일자리 감소, 금리인상에 의한 대출이자 부담 증가, 집값 하락 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도 경기둔화로 연체, 파산 등 금융 긴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미국 금융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험으로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을 지목하며, 러시아-우크라 전쟁 장기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출처 : Financial Times, 로이터('22.5.9) 등 언론보도 종합

● **【제재, 미국·중국】 美 무역대표부(USTR), 對中 관세 301조 검토 개시**

- USTR, 1·2차 對中 관세 검토 절차 착수, 리스트1(만료일 7.6일)·2(만료일 8.23일) 우선 검토 예정

- '18년 對中 관세 부과 절차에 참여한 美 기업이나 단체(600개) 중 하나의 기업이라도 301조 연장 요구 시 검토 개시
  - USTR에 따르면 '3·4차 리스트 검토'는 '1·2차 검토' 후 즉시 혹은 동시에 진행 예정
  - 검토 절차 착수는 對中 관세 301조 만료 시점(4년)을 기준으로 60일 전에 개시되어야 함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對中 관세 면제 품목 확대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재무부·무역대표부(USTR) 등 핵심 부처 간 견해차는 확대
  -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4.2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부과한 對中 관세 내용의 일부는 전략적이지도 않고 미국인의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
  - (재무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對中 관세 완화는 고려할만한 카드임을 언급
  -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對中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2%)이라며, 통화 및 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

출처 : USTR('22.5.3), 주요 언론[폴리티코, Inside US Trade] 보도('22.5.3), KOTRA 워싱턴무역관 등 종합

● **【무역·기술, 미국·EU】 美 상공회의소(USCC), 미-EU 무역기술위(TTC) 희망 의제 발표**

- 5.3일 美 상공회의소,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주요 의제를 선별함

- 주요 의제로 ▲제3국과 협력 강화(Third Country Cooperation), ▲인공지능 및 선진 기술(AI and Emerging Technology), ▲공급망 안정화(Supply Chain Security), ▲에너지 안정화(Sustainability and Energy Security) ▲미-유럽 협력 확대(Recognition Agreement), ▲친비즈니스 정책 강화(Stakeholder Engagement) 등 언급

-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은 5.15일~16일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

출처 : 미 상공회의소('22.5.3) 등 발표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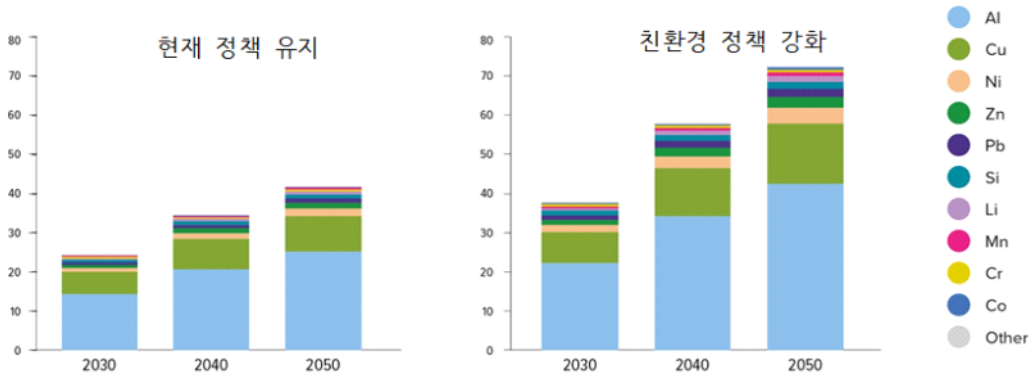
GVC 뉴스 더하기 ① : EU 주요 금속자원 부족으로 녹색·디지털 전환 우려

※ EU 비철금속협회는 **주요 금속자원의 글로벌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특히 금년 말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EU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힘. 동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재 수급 전망과 EU의 공급망 구축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EU 비철금속협회, 주요 금속자원 글로벌 병목 현항 심화 전망

- 유럽 비철금속협회(Eurometaux), **EU의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 전환**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금속자원 부족 현상** 심화 지적

〈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속자원 수요 예상 〉



출처: KULeuven(4.26)

-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화**(7천 5백만t)될 경우, 현재 정책 수준을 유지(4천 5백만t)하는 것보다 **금속 수요가 60% 이상 증가할 전망**

● 재생에너지 전환 기술, 기존 에너지 산업보다 금속 집약적

- 화석연료 대체 위해 EU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전환 기술에는 기존 에너지보다 많은 종류의 금속이 필요**, 사용량이 증가하며 핵심 금속을 중심으로 병목 현상 유발 전망

〈 에너지 산업별 필요 금속 종류 수(단위: 개) 〉

전기 네트워크	5	집열 태양열 CSP	9	원자력	16
바이오에너지	6	수소	12	배터리 저장	17
지열	8	태양광	15	전기 자동차	20
수력	9	풍력	15		

-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20년 대비 '50년 수요 2,109%⇧), **△코발트**(403%⇧), **△니켈**(168%⇧)과 전기차 및 풍력 발전 터빈에 필요한 **△희토류**(**디스프로슘** 433%⇧, **프라세오디뮴** 110%⇧, **네오디뮴** 66%⇧) **사용량 증가 예상**

● EU,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 위해 역내 채굴 확대 및 글로벌 원자재 수급 다양화 추진

- **EU는 공급망 실사 및 역내 광산, 정제소 설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강조**
  -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실사 및 역내 채굴 및 정제를 위한 투자 확대 전망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금속 재활용 생산기업 Aurubis와 Umicore 방문하여 "원자재의 1·2차 공급* 능력 없이 친환경·디지털 전환 불가능"하다 언급하기도 함
  * 채굴 및 제련을 통한 금속 생산을 1차 공급, 재활용을 통한 재생산을 2차 공급으로 정의
- **'30년까지 원자재 1차 공급 의존이 불가피**하나 **재활용 통한 2차 공급이 '40년 이후 주요한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

정리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뉴스 더하기 ② : 글로벌 기업의 탈러시아 움직임 속 리스크 고조

※ 러-우 사태 이후 글로벌 기업 1,000여개사가 러시아 사업의 축소 또는 철수를 발표했으나, **현지 사업 악화, 국책사업과의 관계**('인사이트' 9호 참조) 및 **주식 매각 난항** 등으로 **철수 작업이 장기화되는 분위기**임.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 지속 및 중단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와 제재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 **주요 기업, 러시아 사업 매각 과정에서 비용손실 및 제재로 인한 복잡성 직면**

- 예일대 Jeffrey Sonnenfeld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5.9일 기준 **러시아내 사업을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 1,000여개사가 러시아 사업을 축소**한 상황

- **많은 기업들이 현지 자회사 주식 매각 방식으로 사업 축소 및 철수를 추진 중**이나,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 정부 대통령령) '**유럽, 미국, 일본 등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러시아 현지 자회사의 주식을 러시아 기업에 매각하려면 러시아 정부 투자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3월), 러시아 정부 투자위원회가 간단하게 허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점이 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

〈 기업별 탈러시아 동향 〉

기업명	동향	예상 감가상각
BP	• 러 국영 석유회사 Rosneft의 지분 20% 매각 추진 중	230억€
Shell	• 중 CNOOC, CNPC에 Sakhalin-2 LNG 프로젝트 지분 27.5% 매각 초기 단계 협상 중	47억€
Total Energies	• 지분 10% 보유한 북극 LNG 프로젝트 포함 신규 투자 중단. 가스 생산업체 Novatek 지분 19% 및 Yamal LNG 지분 20% 매각 실패	39억€
Société Générale	• Rosbank 지분 전체 및 러 보험사업 매각, 러 은행 대출 상환	31억€
Renault	• Lada 차 제조사인 Avtovaz 지분 68% 러 국영 연구소에 5년 후 환매 조건부로 1루블에 매각 논의 중 • '21년 그룹 매출의 10%, 자동차 영업 마진 절반 러시아 발생	22억€
Carlsberg	• 매출 9% 차지하는 러시아 최대 맥주 브랜드 Baltika 포함 러 자회사 매각 추진	13억€
Anheuser-Busch InBev	• Anadolu Efes와의 러, 우크라 합작투자를 11억 달러 감가상각으로 Anadolu Efes사에 매각 협상 중 • Efes 지분 24%를 보유해 간접 보유할 전망	10억€
Heineken	• 러시아 사업 이전 추진 중	4억€
Imperial Brands	• 직원 천 명 규모 러 사업 현지 투자자에게 이전	2억€
Petropavlovsk	• 영 컨설팅회사 AlixPartners UK와 자회사 지분 전량매각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 모색 중	1억€
British American Tobacco	• 러 사업을 유통사 SNS그룹으로 이전 중	N/A
Kinross	• 러 광산을 Highland Gold에 6억8천만달러에 매각 계약 (러-우 사태 전 16억 달러 가치) • 러 은행 제재로 관련 서약, 재정보증, 에스크로 계정 등 보안 수단을 활용하여 '23~'27년 사이에 매각대금을 받을 예정	N/A
Repsol	• AR Oil&Gas 지분 49%를 대주주인 러 Neftgazholding에 매각 추진	N/A
Reckitt Benckiser	• 직원 혹은 인수자에 러 사업 이전 물색 중	N/A

출처: KULeuven

● **제재 우회 및 중국·인도·터키 매수자 물색 등 기업별 대응방안 상이**

- 프랑스 해운기업 CMA CGM, 러 국영 철도회사로부터 물류사 Gefco 인수 시 2단계 거래* 통해 러 국영기업과 직접거래 회피

  * Gefco에서 러 국영 철도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먼저 구입 후 매각

-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Saipem, 벨기에 양조기업 Anheuser-Busch InBev 등은 제재 비대상인 터키 파트너에 매각 논의 중이나 터키 기업들은 서방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 조달이 복잡하다며 우려, 실제 대부분 매각은 러시아 기업에 이뤄짐

● **그 외 동향 및 시사점**

- 매각 등 원활한 철수가 어려운 경우 이를 **연기하는 기업**도 존재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성**도 있음)
  - 예일대 Jeffrey Sonnenfeld 교수팀 조사 결과, 5.9일 기준 220개사는 철수를 거부한 상황
  - 프랑스 Total사, 러시아에서 철수 선언 시 자산이 무상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수 선언은 유보

-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 지속·철수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 및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러시아 사업 계속 시 리스크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신용 저하
	• **특히 러시아산 석유·LNG 수입 지속**에 따른 **서방의 對러 경제 제재 효과 저하** -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이코노미스트] '이미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경제를 서서히 회복시키고 있음'
러시아 사업 중단 시 리스크	•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자리를 러시아 토종 기업들이 메우고 있어, **일부 산업에서는 러시아 기업의 내수 강화**가 이뤄지고 있음 - (가구) 이케아 러시아 영업 임시 중단 → 러시아 1위 가구업체 Hoff 매장↑ - (요식업) 맥도날드 사업 중단 → 러시아 기업 도도피자(Dodo Pizza), 테레모크(Teremok, 패밀리레스토랑) 등 사업↑
	•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내 사업(지분)을 **중국·인도·터키 등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의 기업들이 매수**하는 경우,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 효과 저하 → 여타국만 돕게 되는 예상 밖의 효과** - 실제, 과거 일본기업이 이란 내 유전 투자권을 포기한 것을 중국 기업이 인수한 사례
	• **일부 러시아 현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기존 글로벌 기업 상표 및 노하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 **개별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가 존재 - [日 마루가메제면] 러시아 국내 프랜차이즈 점포에 자사 상표 및 상품을 제공하고 권리료를 받아 왔으나,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현지 全점포를 폐점했음에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비슷한 상호로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존재

※ **(생각해보기)** 러시아에는 자동차, 전자, 식품, 호텔 등 분야에서 **15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음. 러시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의 글로벌 ESG 차원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간 공을 들인 거대한 **러시아 시장**(인구 1.5억명)**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 기업들마다 **각자의 상황**(제품·서비스, 기술, 전략적가치, 글로벌 시장구조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우리가 **미국-EU-러시아-중국 관계**와 **글로벌 여론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임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종합전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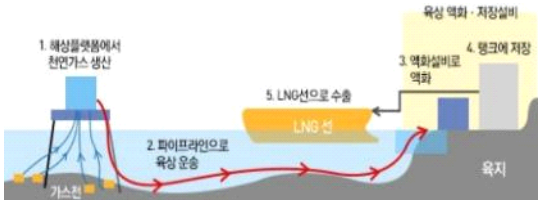
GVC 기초상식 :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 '22.3월 EU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추는 'REPowerEU'를 발표함에 따라 **기존의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LNG(액화천연가스) 형태의 가스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해상에서 LNG의 저장·기화가 가능한 **FSRU가 빠른 LNG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살펴보자

● PNG(Pipe-line Natural Gas)와 LNG(Liquefied Natural Gas)

-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는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배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
- LNG(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으로, 육상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선박을 통해 운송

〈PNG와 LNG 채굴 및 운반방식 〉



(출처: 거제뉴스)

●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 해상에서 LNG를 적재·저장·再기화 할 수 있는 선박형 해양 플랜트로, 운반해 온 가스를 액체로 저장했다가 필요시 再기화 후 육상으로 송출하는 설비
- 최근 EU가 러시아産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REPowerEU'*를 발표 → PNG 대체 LNG가 주목 → LNG 터미널 건설 및 FSRU 도입 필요성이 대두

  *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을 '22년 말까지 2/3수준으로 줄이며, '30년까지 '가스 수입 제로 달성의 내용이 포함

  • 현재 LNG 터미널이 없는 독일 중심으로 FRSU 관심↑ (독일 최대 3기 임차 추진 중), 프랑스 추가 임차(현재 LNG터미널 4기 보유), 핀란드·에스토니아 공동 임차 추진

〈 '14.2월 현대重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FSRU 'INDEPENDENCE'호 〉

(출처: 현대중공업)

● FSRU의 주요 특징

- 육상 LNG 터미널 대비 초기 투자비용 적고 공사기간 짧음
  • 발전 및 산업용 가스 사용을 확대하는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

	건설기간	비용(달러)
육상 LNG 터미널	4~5년	FSRU 대비 절반 수준
FSRU	2~3년 (개조시 1~1.5년)	US250~300백만 (개조시 85~125백만)

(출처: Excelerate Energy)

- 소규모 물량 수입, 수요 계절적 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 부지확보 및 환경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음
- 반면 육상 터미널 대비 용량이 작아 LNG 대규모 수입 국가들의 경우 FSRU의 경제성이 떨어지며, 용선료 등에 따른 운영비용이 높음

● 시사점

-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혼란으로 유럽 내 LNG 시장이 확대**되며, **글로벌 LNG 선박 건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의 수혜가 전망**됨
  • 유럽이 활용했던 러시아 PNG가 LNG로 대체될 경우, 매년 LNG 운반선 59.5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21년 말 기준, 전 세계 FSRU 선복량 35척 중 33척을 국내 3대 조선사('빅3')가 수주
  • '27년까지 우리 '빅3' 조선사들이 수주점유율 80%를 수준을 유지('22년 1분기 70%)한다면 연평균 11조 7,000억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돋보기 : 원자재 시리즈 5편 - '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 파급효과'

※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소비자**는 오르는 물가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제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됨. 이번 편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 원자재 가격 동향

- 원자재 가격은 전체적으로 '21년 평균 대비 큰 폭 상승, 다만 철광석·철강제품은 지난해 가격 강세로 현재(5.6일) 가격이 10% 가까이 감소했으며, 구리의 가격 상승폭(2.1%)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품목별 가격증감률 〉

(%)

품목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철강제품	구리
가격증감률	57.8	136.0	174.6	-10.0	-11.8	2.1
품목	**알루미늄**	**니켈**	**아연**	**쌀**	**밀**	**옥수수**
가격증감률	16.5	62.6	30.5	25.2	56.1	37.1

자료 : Bloomberg, '21년 평균 대비 '22.5.6일 가격 증감률

● 기업 생산자물가 영향

-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그만큼 채산성도 악화됨
- 현재(5.6일) 원자재 가격 기준, **기업 생산비용은 전산업에 걸쳐 '21년 대비 7.088%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특히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6.967%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기업 생산비용 증가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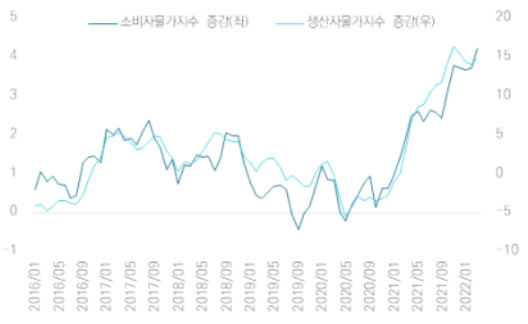
품목	곡물가격 변동 영향	에너지가격 변동 영향	금속가격 변동 영향	전체 영향
농림수산품	0.244	3.394	0.010	3.647
석유제품	0.004	36.632	0.001	36.637
철강제품	0.010	19.803	-2.470	17.343
전력·가스·증기	0.006	69.293	0.033	69.332
제조업	0.119	8.608	0.104	8.831
서비스업	0.051	3.180	0.016	3.247
전산업 평균	**0.079**	**6.967**	**0.042**	**7.088**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직접 계산, '21년 평균 대비 현재('22.5.6일) 원자재 가격 증감률을 기준으로 추정

● 소비자 물가 영향

- 쌀, 밀가루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은 소비자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철강, 구리 등 산업용 원자재는 휴대폰, 자동차 등 최종재의 원료로 사용되어 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기업이 생산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함

〈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행성 〉



자료 : 한국은행, 전년동월비 증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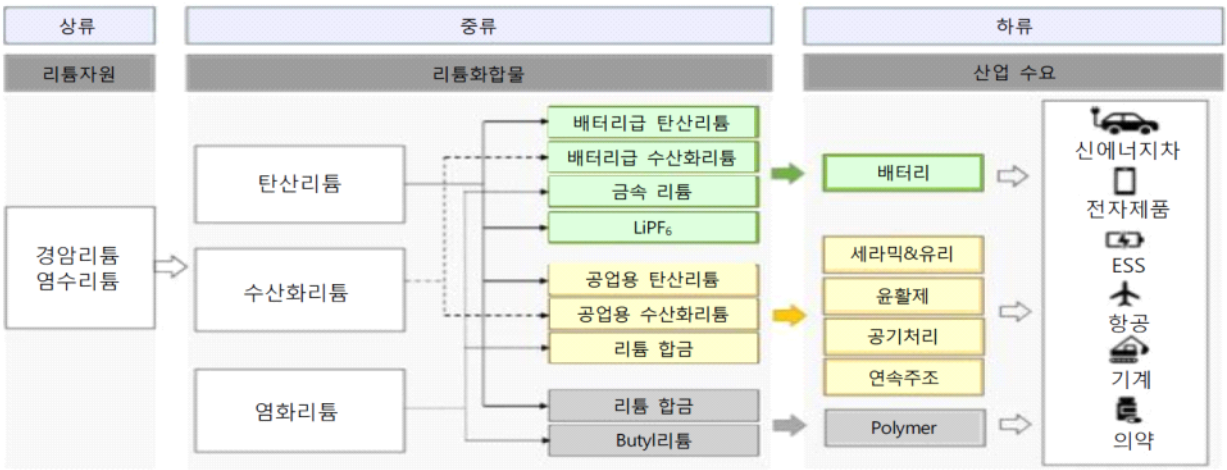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전문가 :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 (중국 초상은행연구원) '리튬산업 슈퍼사이클 시작, 글로벌 자원경쟁 심화'

※ 최근 공급망 이슈의 중심에 있는 **'리튬'**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와 **리튬배터리**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전략적 신흥 산업 광물로 등재**됨. 이와 관련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가 중국 초상은행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자원경쟁 중심에 있는 **리튬산업 슈퍼사이클** 이슈를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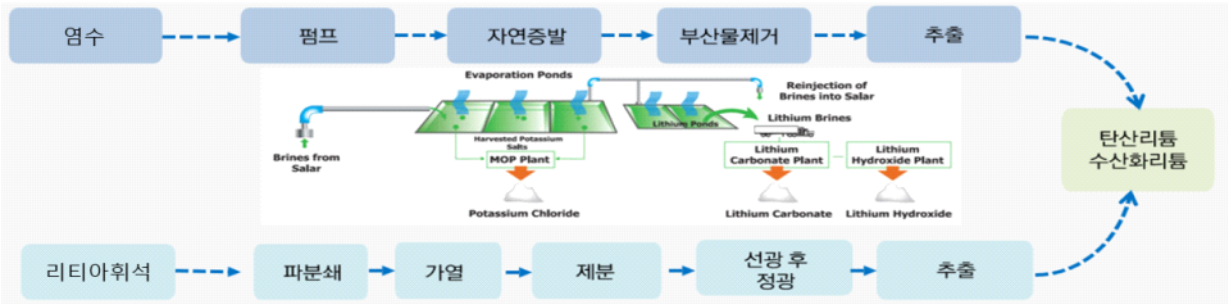
● 리튬의 가치사슬

- (**가치사슬**) [상류] 천연광물(염수 & 경암) → [중류] 리튬화합물(탄산·수산화·염화·금속) → [하류] 배터리, 세라믹, 유리, 합금, 윤활유 등



● 개발 방식 및 부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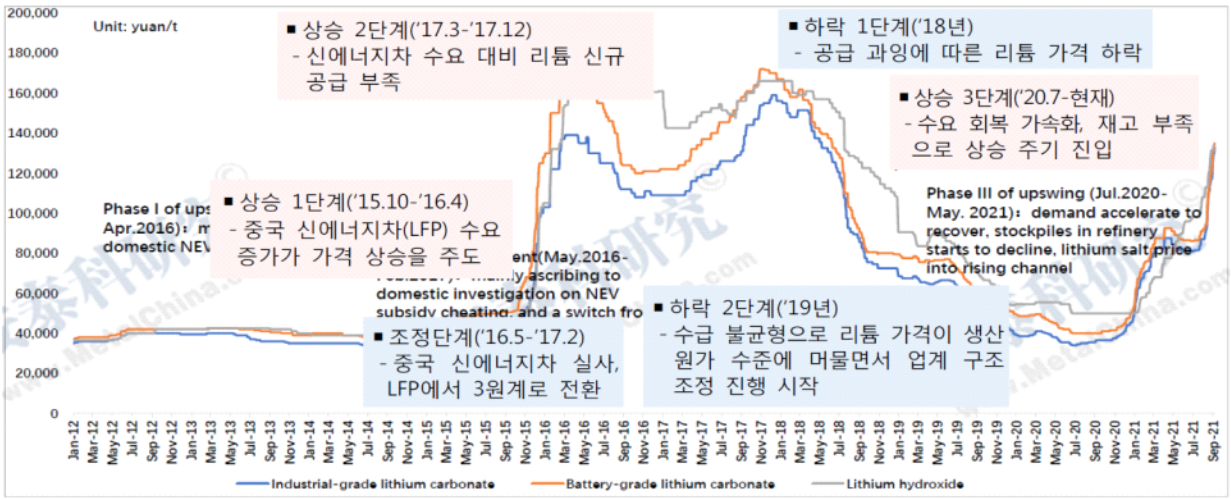
- (**염수형**) 염수 증발 → 부산물 제거 → 추출 등을 거쳐 탄산리튬을 생산하며, 칠레에 주로 부존함
- (**경암형**) 광석을 이용해 물리·화학적 선별법(파분쇄·가열·제분 등)을 거쳐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주로 수산화리튬) 생산, 호주에 주로 부존
- (**점토형**)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지에 광산 존재, 아직 상업화되지는 않음



● 생산·소비·공급 현황 및 가격·수급 전망

- (**생산**) 호주·칠레·아르헨티나·중국에 집중, 최근 호주에서 경암형 리튬 생산이 빠르게 증가 중
  - '20년 생산량은 82.5천톤(금속량 기준)으로 '19년 대비 4.7% 감소, '21년 생산량은 10만톤 수준으로 증가(잠정치)
- (**공급**) 리튬염의 경우, ALB(미국, 22.0%), SQM(칠레, 20.8%), 간펑(중국, 17.3%), 티엔치(중국, 9.0%), Livent(미국, 6.1%) 등 5개 기업이 전 세계 75%를 공급
- (**소비**) '20년 전세계 리튬염 수요는 369천톤LCE*로 전년대비 7.5% 증가, 배터리 수요가 약 71% 차지

  * LCE(Lithium Carbonate Equivalent) : 글로벌 리튬 시장의 표준 단위, 환산식은 LCE = 5.323 x 리튬금속
- (**가격**) 수요가 가격 추세를 지배하는데 '15년 이후 신에너지차, ESS 등장으로 배터리 수요 급증 → 리튬 수요 급증. 이에 더해 공급 상황이 가격변동을 가속화하는데, '18년 이후 가격 급락 → 기존 광산 폐쇄 및 신규 광산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상황으로 전환 ⇒ 전반적인 가격 급등
  - 탄산리튬 가격(위안/톤) : ('20.9월) 39,000 → ('22.4월) 490,000 (1,156%↑)
  - 수산화리튬 가격(위안/톤) : ('20.11월) 46,500 → ('22.4월) 483,000 (939%↑)



- (**수급**) 호주·칠레·아프리카 등지에서의 본격적 공급 증가로 '23년부터 공급 과잉 상태 전환 전망.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프로젝트 등 추가적인 공급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급 부족 상태 예상

● 시사점

- **리튬화합물의 장기 공급 부족 가능성**으로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 **기업들은 공급 안전성 확보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 확보 강화** 중
  - (확보방식) ❶중류 리튬화합물 제조업체, 하류 배터리 및 신에너지차 회사 ⇒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상류 리튬 자원 직접 확보, ❷하류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 중류 리튬화합물 판매 계약 선점
  - (유망지역) 호주 광산과 칠레 염호는 이미 선점, 아르헨티나 염호 및 아프리카·북미·남미 광산들이 핵심 투자처로 부상
- 현재 전 세계 **리튬화합물 생산**은 **"해외자원(남미 삼각지대, 호주) + 중국 가공" 모델**이 지배, **중국이 리튬 공급망 內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향후 동향을 주목**해야 함
  - 염호·광석 리튬 추출 기술은 중국 기업이 통제하며, 낮은 환경보호 기준과 생산비용으로 중국이 리튬염 생산의 대부분 차지
  - (생산능력) [리튬화합물] '20년 전 세계 약 73만톤LCE, 그 중 중국의 생산능력 약 51만톤으로 70%를 차지
    [수산화리튬] 더 높은 기술이 필요, '20년 전 세계 약 111천톤LCE, 그 중 중국이 생산능력의 약 85%를 차지
  - 중국 유수의 리튬화합물 생산기업인 간펑, 티엔치 등은 호주 생산 리튬 정광을 사용해 직접 리튬염을 생산, 중국 기업의 OEM 방식 생산 외에 미국 ALB 등도 중국(쓰촨성 청두, 장시성 신위, 광시자치구 친저우 등)에 가공공장 개소 시작

※ 주요 광물 가격 및 시장 동향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www.kores.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 · 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 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2-3460-7428)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타 지역 긴급 운송 또는 대체 바이어 찾는 과정 중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반품,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즈니스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러시아 변호사의 수출제재 상세내용, 러시아 기업 조회, 계약서 검토 등 지원
⑦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정리 종합전략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등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 펀드로 100만원~1,000만원 지원**
  - 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VAT포함
- (사업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항공·해상운송] 로스엔젤레스 수출 중소기업 항공·해상운송 지원사업(한국무역협회·대한항공·밸류링크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및 전용 선복 마련을 통해 운송 지원(~'22년 6월)

〈 항공 - 항차 정보 〉

도착지	출항지	출항일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Los Angeles, CA	부산	6월 14일(화)	**6월 7일(화)**	3FEU

〈 해상 - 출항 정보 〉

출항예정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 (상세내용) 대한항공 공동 "회원사 항공운송 지원사업"(클릭) 또는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5754 / hjo117@kita.net

●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복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는 신청불가*

☞ **기존대비 변경사항**
- ▸도착지 확대 : **유럽 전역 및 러시아**
-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항차 정보〉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 · 4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작성 글로벌 모니터링실(KOTRA), 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

더 찾아보기 : '작지만 큰 기술, 일본 소부장의 비밀'(정혁 지음) 책 소개

※ **일본**은 몇 세기에 걸친 서양 문물 도입과 과학 기술의 축적을 통하여 **부품소재 강국으로 발전**함. KOTRA 정혁 前일본지역본부장은 그의 저서를 통해, 현지에서 경험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혁신 소부장 기업들을 소개**하였음. 그 중 **최근 공급망 위기로 주목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JSR, 글로벌 네트워크로 계열의 벽을 넘다

JSR (주요 통계치는 '20.3월 결산 기준)	기업명	JSR Corporation
	본사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 설립/직원 수: 1957년 / 8,748명 • 매출액/영업이익: 4,720억 엔 / 329억 엔(7.0%) • 대표품목: 합성수지, 포토레지스트, LCD재료 등 - 반도체 회로 집적도를 결정하는 노광공정에서 빛에 의한 화학변화로 회로를 새기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주로 생산, 해당품목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24%)	

-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며 지속 가능 경영 위한 사업 다각화를 검토, 기존 합성고무 사업으로 다진 고분자 배합 기술 기반, **반도체 재료(네거티브 레지스트) 사업 시작**
- 1985년 벨기에 루벤大 **미세전자공학연구소와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 '디자이어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

- 그러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구축한 연구진의 반도체 공정 지식**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철저한 현지 밀착 경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선점**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벨기에 루벤대학 미세전자공학연구소(IMEC)와 다진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IBM, ASML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반도체 미세 공정 흐름 가속화에 대응하는 품질 수준을 달성 - 1999년 시작된 IMEC **'193nm 광리소그래피'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타 기업보다 먼저 ASML의 노광장치를 테스트, 불화아르곤용 레지스트 개발 및 시장 선점 - '16년 **IMEC와 합작하여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RMQC를 벨기에에 설립**, 포토레지스트와 노광장치의 결합 강화
현지 밀착 경영	• 자회사로 전환된 캘리포니아 소재 **JSR Micro**, 일본 국내 연구소보다 먼저 **불화크립톤 노광장치를 구매**하여 미국 반도체 기업과 같은 개발 환경 조성

● 신에츠화학공업, 전략적 M&A와 초절약 경영을 통한 세계시장 석권

Shin-Etsu (주요 통계치는 '20.3월 결산 기준)	기업명	Shinetsu Chenmical
	본사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 설립/현재 직원 수: 1926년 / 21,735명 • 매출액/영업이익: 1조 5,435억 엔 / 4,060억 엔(26.3%) • 대표품목: 실리콘웨이퍼, 염화비닐수지 등 - 반도체용 웨이퍼와 염화비닐의 세계 최대생산기업	

- 1953년 실리콘, 1956년 PVC 생산 시작, 초기부터 대형 종합기 사용, 전산제어 등 **선진 기술 보유, 1960년대부터 빠른 글로벌화**
- 오일쇼크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불구, **외국 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M&A로 부족한 경영 자원을 극복**하고, **리엔지니어링으로 가격 경쟁력과 높은 영업이익을 확보**

전략적 M&A와 초절약 경영	PVC	• PVC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던 美로빈테크는 신에츠화학공업에게 기술 수출을 제안했으나 역으로 **신에츠는 합작투자를 제안, 신테크를 설립**하고 1974년부터 텍사스주에서 생산 시작 • 로빈테크가 경영 위기에 처하자 신에츠화학공업은 **신테크의 지분을 인수, 100% 자회사로 전환**. 오일쇼크로 종업원의 20%를 구조조정할 위기였으나, 이러한 투자가 '신의 한수'로 작용하여 1990년 연간 생산능력 200만 톤의 세계 최대 PVC 기업으로 성장 • PVC는 범용 제품으로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으나, **소수 정예주의와 리엔지니어링 기반, 비용 절감에 성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실리콘 웨이퍼	• 신에츠화학공업은 **1961년부터 반도체 웨이퍼 사업**을 시작 → 1967년 **다우코닝과 합작으로 신에츠 반도체를 설립**하며 본격적 사업 전개 (신에츠화학공업 55%, 다우코닝 45%) • 1979년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합작 파트너인 다우코닝의 지분 인수 요청 및 요청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에츠반도체 100% 자회사로 전환**, 시장점유율 1위로 성장

정리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분석센터' 방문 및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개최 ('22.4.29)**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현안 점검
    ·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방안,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추진방안 등 협의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5. 11. 수)

[환율]

	'20.12.31	'21.12.31	'22.4.30	'22.5.6	'22.5.9	'22.5.10	전일比	21말比
₩/U$	1,186.30	1,188.80	1,255.90	1,272.70	1,274.00	1,276.40	0.19	5.2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273.10	1,275.00	1,276.10	0.09	5.08
₩/CNY	166.04	186.51	192.06	190.43	189.43	189.88	0.24	2.32
₩/Y100	1,051.19	1,032.48	964.30	974.95	972.22	979.06	0.70	△5.23
Y/U$	103.34	115.14	130.24	130.54	131.04	130.37	△0.51	11.02
U$/EUR	1.2279	1.1318	1.0544	1.0508	1.0510	1.0565	0.52	△5.34
CNY/U$	6.5305	6.3681	6.5975	6.6790	6.7189	6.7045	△0.21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5.9 (전일)	'22.5.10	전일(5.9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7.40	108.00	0.6	115.8	40.0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31.40	128.10	△2.5	46.8	6.1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160.00	9,350.00	2.1	20.6	△3.5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708.00	2,677.00	△1.1	37.2	△4.6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8,400.00	27,760.00	△2.3	74.5	32.7

[반도체]

	'20	'21	'22.2	'22.3	'22.4	5.5	5.6	5.9	5월(~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88	3.75	3.47	3.46	3.46	3.45	3.46
(%, YoY)	△21.9	8.0	△0.6	△11.00	△25.1	△25.3	△25.1	△25.1	△22.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65	8.0	8.2	8.2	8.2	8.2	8.20
(%, YoY)	7.0	32.8	33.1	33.9	34.5	34.9	34.5	35.0	32.9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4.15	'22.4.22	'22.4.29	'22.5.6	전주(4.29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4228.65	4195.98	4177.3	4163.74	△0.3	△17.5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4.29	'22.5.3	'22.5.4	'22.5.5	'22.5.6	전일(5.5比)	'21년말比
BDI	2217	2404	2412	2485	2644	2718	2.8	22.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K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KAR 한국로봇산업협회 ·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KONMA 한국비철금속협회 · KPIA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KOIMA 한국수입협회 · 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KBIA 한국전지산업협회 ·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철강협회 · KAI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kosti 전략물자관리원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KNOC 한국석유공사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T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